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뒤 세상을 떠난 홍범도 장군의 현지(크질오르다) 묘역. 사진 독립기념관 제공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를 말한다

봉오동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



대한민국 국군은 100년의 전쟁 역사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 의해 지어진 뒤 1948년 정식 정부 수립 후에도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 만주 일대의 독립군을 산하로 편입해 일본과 독립전쟁을 벌였다. 100년이 넘는 전쟁역사의 출발점이다. 이에 국방저널(국방일보)은 올해부터 지난 100년간 나라를 위해 앞장서서 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쟁 영웅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월호의 주인공은 봉오동전투로 시작된 1920년 항일무장투쟁의 선봉에 섰던 홍범도 장군이다.

글 정호영 기자 사진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제공

의병부터 독립군까지 외길을 걷다

대한민국 국군의 출발점은 좁게는 독립군과 광복군부터라는 주장과 넓게는 대한제국의 군대와 의병부터라는 주장이 공존한다. 독립군이 국군의 뿌리 출발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의병부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주장의 밀바탕에는 1920년 일제와 독립전쟁을 벌이던 당시 독립군의 상당수가 의병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다.

의병은 국가가 외침으로 인해 위태로울 때 정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웠던 민병을 말한다. 전쟁이란 원래 국가와 국가 간의 무력충돌을 뜻하지만 1907년 대한제국 정부는 전쟁을 수행하거나 결정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당시의 국가 및 국민의 의사는 의병이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의병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다.

의병전쟁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망할 때까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무력항쟁을 말한다. 반면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에 일제와 싸운 것은 독립전쟁으로 구분한다. 대한제국 시기에 전개된 의병전쟁은 1910년 이후에도 계속되어 1918년까지 일제에 항전했다.

홍범도는 이러한 의병부터 독립군까지 한길을 걸은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는 1890년대 후반 항일의병투쟁에 나선 이래 한말 의병과 3·1운동 이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항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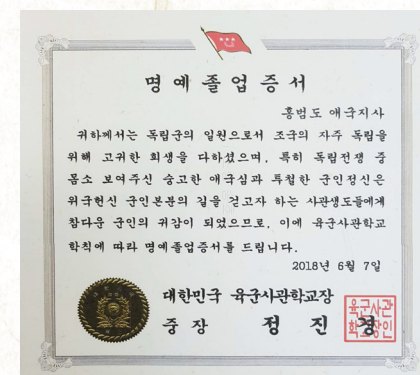
무장투쟁을 벌였던 전설적 영웅이다.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투쟁 역사에서 홍범도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한마디로 그의 삶 자체가 의병과 독립군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부패한 군인, 지주, 자본가들에 맞서 싸웠고,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을 꺾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홍범도를 연중기획인 ‘대한민국의 전쟁영웅’에서 재조명한다.

불우한 성장 속에 의병이 되다

홍범도는 머슴 출신의 독립운동가다. 홍범도의 태생 배경과 살아온 과정은 그동안 여러 설이 얹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의 출생지는 평양 서문 안에 있는 문렬사 부근으로 알려져 있다. 부친인 홍윤식은 가난하기 짝이 없는 농민이었다. 홍윤식의 증조부가 ‘홍경래의 난’을 이끈 홍경래와 가까운 일가붙이라는 말도 있지만 확실치 않다. 소설에서 만들어 낸 이야기라는 것이 정설이다.

태어나자마자 모친을 잃은 홍범도는 부친이 집집을 다니면서 동네 짓을 먹여 키웠을 만큼 어렵게 자랐다. 그나마 그가 아홉 살 때 부친마저 죽었다. 그는 가난한 숙부 집에서 자랐으며 조금 커서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머슴살이를 했다.

홍범도의 나이 15세 때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당시 조정에서는 평양에 지역방위군인 진위대를 설치했다. 군졸을 모집할 때 17세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었는데, 홍범도



2018년 육군사관학교로부터 수여된 명예 졸업증서.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 흉상.



봉오동전투의 두 주역인 홍범도 장군(왼쪽)과 최진동 장군.

는 두 살을 속이고 입대했다. 그는 진위대 우영(右營)에 배치되어 나팔수로 3년 동안 복무한 뒤 병영을 떠났다. 말단 군인 생활이 너무 힘들고 미래를 꿈꿀 수 없을 만큼 척박했기 때문이었다.

홍범도는 이후 황해도에서 일꾼 노릇을 했다. 그런데 주인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려먹자 주인을 때려 눕히고 3년 만에 도망쳤다.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에 있는 신계사를 찾아가 중이 됐다. 홍범도는 이때 글도 배우고 역사에 대한 지식도 쌓았다.

홍범도는 이 시기 비구니로 있던 한 여인(단양 이씨)과 연애를 하면서 절을 떠났다. 그는 3년간 물지게꾼으로 살면서 단양 이씨 사이에 두 아들(양순, 용환)을 두었다. 그는 또 예사롭지 않은 사냥꾼을 만나 수렵 생활을 하며 창법과 검법을 익히기도 했다.

홍범도가 수렵 생활을 하던 1894년,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이 벌어졌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전해 듣고 일본 타도에 앞장서겠다고 각오한 뒤 산중생활을 청산했다. 의병으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의병장으로 명성을 높이다

1895년 8월, 홍범도는 강원도의 산길에서 황해도 서

홍 출신의 김수협을 만났다. 두 사람은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몰아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나서 원산에서 서울로 가는 일본군 12명을 습격해 총과 탄환을 탈취했다. 이 무기로 두 사람은 포수와 빈농 등 14명으로 구성된 첫 의병부대를 조직했다. 두 사람은 의병 지원자들에게 한 달 동안 군사훈련을 시키며 병법을 가르쳤다.

홍범도는 정식으로 학문을 배운 적이 없다. 겨우 조선문(한글)만 알 정도였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생활(머슴, 군인, 스님, 사냥꾼 등)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의병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두 사람은 의병을 거느리고 철원 보개산으로 진출했다. 마침 그곳에서 남쪽에서 올라온 유인석 의병부대 100여 명을 만났다. 의병 규모도 300명 이상으로 불린 홍범도는 마침내 일본군과 첫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세 차례나 연속해서 패했다. 의병들은 모조리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고, 김수협마저 전사했다.

이후 홍범도는 일본군에 쫓기며 3년 동안 강원도, 함남 덕원, 황해도 지경산, 평안도 양덕, 성천, 영원 등 산간지대를 넘나들며 단독으로 의병 활동을 전개했다. 이 무렵 홍범도는 헤어졌던 부인 단양 이씨와 재회하게



1942년 카자흐스탄에서 공연된 연극 <홍범도>의 한 장면.



독립군으로 활동하던 당시의 홍범도 장군(사진 중앙).

되었다. 그리고 처가가 있는 함경도에서 화전과 사냥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명포수로 이름을 떨쳤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의병이 일어나자 홍범도는 삼수, 갑산 등지에서 반일투쟁에 나섰다. 1907년 들어 일제의 꼭두각시가 된 대한제국 정부는 우리 민중의 무장항쟁을 억누르고자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공포했다.

이에 홍범도는 태양옥(太陽郁), 차도선(車道善) 등과 함께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포수들을 집결시켰다. 이들은 후치령을 근거지로 하여 일본군 국경수비대를 공격하고 우편마차를 탈취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군을 유인하여 섬멸하기도 하고 군용화물차를 습격하기도 하면서 갑산, 해산진, 삼수, 풍산 일대를 교란했다. 이렇게 해서 의병 1천여 명을 모아 군량도감 등 부대의 진용을 갖추고 격문 포고문을 돌리면서 약 3년 동안 게릴라 전법으로 37회의 전투를 벌였다. 의병들은 구식 군대를 영입하고 대포와 탄약을 자체 생산했다. 일제는 성진의 군대까지 동원했으나 맞대응하기가 어려워지자 회유와 귀순 공작을 폈다. 일본군의 집요한 회유와 공세는 결국 의병을 붕괴시켰고, 홍범도의 가족(부인,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홍범도는 1908년 10월 동지 세 사람과 함께 압록강을 넘어 중국을 거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으로 들어갔다.

일본군은 러시아 정부에 강력하게 항일의병을 저지해

달라는 요구를 가하며 홍범도를 쫓았다. 이에 홍범도는 1909년 6월 무렵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뒤 소식을 듣고 몰려든 포수들과 함께 북청, 갑산, 해산 일대에서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홍범도는 1910년 3월 무렵 정예부대를 조직, 장백현 일대에 근거지를 두고 둔전을 일구며 의병 활동을 계속했다. 그의 활동무대는 1919년 정식 독립군을 창건할 때까지 국경 일대에서 게릴라 전법으로 전개되었다. 일본군과 경찰, 그리고 국경수비대는 끝내 그를 잡지 못했다.

봉오동전투서 대승을 거두다

1919년 3·1운동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됐다. 각지에서 독립운동 단체들이 재정비되거나 새로이 조직됐다. 홍범도는 두만강 변의 국경지대에서 의병과 포수들을 모아 대한독립군을 정식 창설하고 사령관으로 추대됐다. 홍범도는 이 독립군을 이끌고 해산진과 갑산의 일본군을 습격했다. 이어 백두산에 근거지를 두고 두만강 연안인 자성, 강계, 만포진, 회령 등지에 있는 일본 군영과 경찰관서를 공격했다.

홍범도는 1920년 5월 북간도의 국민회 계열 독립군과 연합하여 북로제1군사령부의 사령관이 되었다. 그리고 결전의 칼날을 기다렸다. 그동안 홍범도부대의 활약을



중국 길림성 도문시에 세워진 봉오동 반일전적지 비석.



독립군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이 함명인 해군의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의 진수식 모습. 국방일보 DB

벼르던 일본군은 대대급 병력으로 홍범도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봉오동(지금의 중국 도문시 봉오동 저수지 골짜기)을 전면 공격했다.

1920년 6월 7일, 봉오동 골짜기에서 네 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피가 냇물을 이룬 뒤에야 정적을 되찾았다. 당시 독립군은 400여 명, 일본군은 남양수비대 병력 등 300여 명이었다. 결과는 홍범도부대의 대승이었다. 적 사살 157명, 사상자 200여 명의 전과를 올렸는데 아군은 불과 15~16명의 전사자만을 냈다. 청산리전투의 서막이었다.

홍범도는 봉오동전투 이후 변화되어가는 정세를 직감했고 새로운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김좌진, 안무, 최진동 등 만주 일대 군사지도자들과 합의해 새로이 합동작전을 펴기로 했다. 이때 홍범도는 직속부대 3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전사에 의하면 청산리전투에 참여한 독립군 총병력은 1950명, 일본군 총병력은 7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0년 10월 21일, 백운평전투를 시작으로 6일만에 걸쳐 청산리전투가 벌어져 독립군은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때 독립군의 주력은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지만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도 적지 않은 전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련 땅에서 독립군의 전설로 남다

청산리전투 후 독립군은 일본군을 피해 러시아 땅 흑

하(黑河, 자유시)로 이동했다. 당시 레닌의 적군(공산당 군대)은 처음엔 한국 독립군에 협조적이었으나 일본군이 침공하여 항의하자 태도를 바꿨다. 볼셰비키는 일본군이 철수조건으로 한국 독립군의 해산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자,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한인 독립군은 무장해제를 당하면서 엄청난 사상 피해와 함께 와해됐다.

홍범도는 결국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의 러시아 땅에 영영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소련의 지도자인 레닌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고려공산당에 가입해 극동인민 대표회의에 김규식, 여운형 등과 함께 한국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1937년이 되자 소련의 스탈린은 연해주 일대에 있는 조선인을 모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홍범도도 그곳으로 이주해 집단농장 일과 극장 경비원 일도 맡아 보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는 1943년 10월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현재 그의 묘 앞에는 동상이 세워져 현지 고려인 동포들이 설날이나 기일마다 참배할 만큼 높이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다.

홍범도는 개인적 불행과 민족적 비극을 일치시켜 철저한 신념과 굳센 의지로 의병부터 독립군까지 이어지는 독립투쟁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쟁영웅이었다. 

볼셰비키 공산군이 독립군을 학살하다

자유시 참변이란



독립군과 의병의 차이점은 정부에 소속된 군대나, 아니냐로 구별된다. 그런 점에서 1919년 4월 11일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에 속한 항일무장단체를 흔히 독립군이라고 부른다. 이런 독립군은 1920년 10월의 청산리대첩 이후 급격한 몰락과 해체 과정을 걷는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다.

자유시 참변(自由市慘變)은 1921년 6월 28일 현재 러시아 아무르주의 스보보드니(Svobodny)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스보보드니는 레닌의 적군(赤軍 : 붉은 군대)에 의해 스보보드니 즉, 자유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는 이만이라고 부른다. 러시아 붉은 군대가 한인 무장 독립군들을 포위, 학살한 사건이다. 다른 말로 자유시 사변(自由市事變), 흑하사변(黑河事變)으로도 불린다.

1920년 일본군은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등에서 독립군에게 참패를 당했다. 이후 독립군 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단행했지만 성과가 없자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않고 한국인 수만 명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켰다. 이로써 서간도, 북간도 등 만주에서 활동하던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은 일본군에 쫓기게

됐다. 독립군은 이후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북쪽 러시아와 만주의 국경 지역인 흑룡강성 밀산시(密山市)에 모였다. 이곳에 모인 독립군 10개 부대는 통합 및 재편성을 통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했다. 당시 러시아는 내전 중이었다. 레닌의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한 적군(赤軍)과 반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백군(白軍)이 대립하고 있었다. 이때 레닌의 볼셰비키는 약소민족의 독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원이 필요했던 대한독립군단은 밀산에서 겨울을 나고 1921년 러시아-만주 국경을 넘어 시베리아의 자유시로 향했다. 반면 이범석, 김홍일 등 일부 독립군은 러시아 이만으로 가지 않고 만주에 남아 있었고, 김좌진은 이만까지 갔다가 만주로 되돌아 왔기에 병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볼셰비키의 적군은 자유시로 들어온 대한독립군에게 공산당을 위해 싸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독립군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적군은 대한독립군을 포위한 뒤 무장해제 시켰고, 학살극을 벌였다.

당시 자유시에 모인 한인 무장 군대는 크게 민족주의 계열의 대한독립군단과 공산주의 계열의 연해주 및 시베리아 한인 무장 세력이 있었다. 그런데 공산주의 계열의 무장 세력 2곳(상하이파, 이르쿠츠포)이 서로 연합부대의 통수권을 차지하려고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독립군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것이 참변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일선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독립군은 적군의 감언이설에 속아 자유시로 이동하였고, 적군을 도와 내전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적군은 내전에 승리한 후 독립군의 무장을 강제로 해제하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독립군을 공격함으로써 무수한 사상자를 낸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야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호영 기자